

## 1

## 참깨재배 및 생산 동향

참깨(*Sesamum indicum* L.)는 아프리카지역이 원산지로 기원전 3,000년경에 나일강 유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페르시아, 인도, 중국, 한국 등으로 전파되었다고 전해지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참깨의 재배면적은 약 760만ha 정도이며 아시아 대륙이 약 58%, 아프리카대륙 37%, 나머지는 중남미 등에서 재배되고 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인도가 재배면적이 가장 많고 미얀마와 중국 순이다.

세계 참깨생산량은 316만톤이며 그중에서 아시아에서 66%인 208만톤을 생산하며, 아프리카에서 32%인 100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중남미에서 79천톤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의 참깨 10a당 평균생산량은 약 42kg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재배



수확



건조

그림 1. 아프리카지역(우간다)의 참깨 재배

우리나라의 참깨생산량은 2015년에 25,139ha를 재배하여 세계의 0.3%정도이고, 생산량은 11,678톤 정도이다. 10a당 종실 생산량은 약 46kg 정도로 세계수준(42kg) 보다는 약간 높으나 일반적인 수량성은 매우 낮다.

미안마나 인도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이유는 고온 건조한 기후가 참깨의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족고유의 조미원으로 참기름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기후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참기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배가 이어지고 있다.

참깨의 주요 수출국은 인도, 에디오피아, 수단, 중국, 나이지리아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일본, 터키, 한국, 미국 등이다. 최근 중국은 내수 수요가 급증하여 품질이 좋은 것은 수출을 하며, 값이 싼 인도, 아프리카산을 수입하여 국내수요에 충당하고 있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국가이다.

참깨의 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종실을 볶거나 으깨어서 기름, 무침, 초밥 등에 이용하며, 터키는 볶지 않는 종실을 페이스트과자용으로 주로 이용을 한다. 미국은 껍질을 벗긴 생참깨를 찌서 햄버거 위에 뿌려서 이용하거나 볶지 않는 참기름을 샐러드유로 이용한다.

최근에 참깨의 리그난유 등에 대한 기능성 성분이 알려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꾸준한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단위면적당 종실수량을 높일 수 있는 내병다수성 품종육성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화된 기계화 재배법의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